

증권 다이제스트

삼성자산운용

삼성포커스알파
목표전환형 펀드

삼성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기업에 집중투자해 정해진 수익을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삼성포커스알파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이 위탁운용한다. 모집기간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기업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의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만 향후 무역분쟁 해소, 북미 긴장완화, 통화긴축 속도 둔화 등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돼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연 6.0% 수익 추구
20억 규모 ELS 1종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1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2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82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손영지 기자



키움증권

코스닥벤처펀드
가입하면 상품권

키움증권은 코스닥벤처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코스닥벤처펀드 같이 살래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 우선배정 혜택(전체 벤처기업 투자신탁 기준)과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액 10% 최대 300만원까지, 1과세연도)이 주어지는 펀드다. 해당 펀드 가입 고객에게 100만원 이상 매수 시 사용할 수 펀드 쿠폰(2만원)과 가입금액별로 교환치킨세트, 도미노피자세트, 아웃백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손영지 기자

남북경협株, 의외로 주춤... 향후 주가 전망은

“회담만으론 역부족... 구체 결실 땀 반등”

종전 선언·비핵화 등
확실한 시그널 나와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주식시장이 주춤했다. 남북경협에 따른 수혜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남북경협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제재가 풀려야 하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나 '비핵화' 등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는 전일 대비 2.61% 내린 11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엘리베이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현대아산의 대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며 연 초(1월 2일) 이후 101.8%나 오르며 남북경협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주도 지지부진했다. 건설주는 남북경협 시 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대표적인 수혜종목으로 꼽힌다. 장 시작과 동시에 반등세를 보이더니 이내 하락한 후 장 마감 직전 소폭 상승에 그쳤다.

〈남북경협주 연 초 이후 수익률〉

종목	1월 2일 (원)	9월 17일 (원)	수익률
남광토건	6150	22950	273.17%
현대아산	15000	45300	202.00%
현대엘리베이터	55500	112000	101.80%
이화공업	4695	9150	94.89%
일신석재	1285	2375	84.82%
현대건설	37150	68700	84.93%
GS건설	28650	52800	84.29%
현대로템	18850	31600	67.64%
아세아시멘트	112500	145000	28.89%

*현대아산은 K-OTC 내 가중산출주

지난 5월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상승가를 기록한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이벤트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내성'이 생겼다"면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연 초 이후 주가가 50% 이상 오른 남북경협주들은 꾸준히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광토건은 연 초 이후 273.17% 오른 상테고 이화공업, 일신석재 등도 각각 94.89%, 84.82%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

래 사이트인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대아산 역시 1월 보다 202.00%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북한전략 전문가들은 경협주에 재반등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아닌 정전선언, 핵폐기 등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야 한다고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통일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만 실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정상회담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미 간 종전선언, 핵 폐기 스케줄 교환 등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주

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는 국내 4대 그룹 대표가 동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없겠느냐의 질문에 대해 "재계 대표들은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동행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각종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북한전략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정전선언, 비핵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봤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경협주에는 모멘텀 재시작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관련 투자는 기대감과 교착상태가 반복되기 되는 등 예측이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남북경협주는 코어(중심)와 모멘텀 남북경협주로 나누고, 코어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대응하고, 모멘텀 종목(이슈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큰 기업)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코어 남북경협주로 현대건설, GS건설, 쌍용화학, LS산전 등을 꼽았고, 모멘텀 경협주로는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 아난티, 대아티아이, 남광토건 등을 제시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外人, 두달째 주식 '사자'... 채권 보유 '사상 최대'

8월 주식 1조1020억 순매수
채권 총 114조3000억 보유

외국인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특히 채권은 올해 들어 계속 사들이면서 보유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02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2조391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493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은 7월에 이어 두 달째 순매수, 채권은 1월 이후 순유입세가 지속됐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502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3910억원을 순투자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합계	7월	8월	보유잔고
주식	10,180	10,894	△714	△2,700	98	599,824
채권	9,447	14,520	△5,073	15,851	1,438	114,282
합계	19,627	25,414	△5,787	13,151	1,536	714,106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했다. 8월 말 기준 총 114조3000억원을 보유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순투자 규모는 7월보다 더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동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규모로 순투자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50조5000억원으로 44.2%를 차지했고 ▲유럽 37조6000억원 (32.9%) ▲미주 11조2000억원(9.8%) 등이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각각 1조3000억원과 1조원을 순투자했고, 보유잔고는 국채 91조1000억원(전체의 79.7%), 통안채 22조2000억원(19.4%) 순이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는 1조102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

100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억원 규모로 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잔고는 599조8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유럽은 900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사우디는 5000억원, 룩셈부르크는 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4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4조1000억원 ▲아시아 70조8000억원 ▲중동 21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안상미 기자 smahni@

해외주식 직구 투자자 92% “더 늘리거나 유지”

삼성증권

해외주식세미나 고객 설문조사
유망지역 美 1위, 쇼이머징 2위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일부 이머징 국가의 유동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직구 투자자들의 해외주식사랑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삼성증권이 최근 전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한 해외주식세미나 참석고객 중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60.7%는 향후에 해외주식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유지하겠다는 답변도 31.1%를 차지했다. 줄이겠다는 답변은 8.2%에 불과했다.

향후 자신의 금융자산중 해외비중을 얼마까지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2.6%가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해 해외분산투자가 투자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유망투자지역으로는 미국이 40.4%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21.7%) 제치고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이 28.3%로 2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중목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해당기업의 미래성장 스토리가 37.0%로 가장 높게 나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성장자산발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글로벌투자에서 가장 관심있는 이슈로는 미중무역분쟁(32.8%)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변화 양상(32.1%)을 꼽았다.

특이한 점은 해외주식 거래시 활용하

는 정보채널로 45.9%가 증권사 PB를 선택해, 온라인 정보 활용도가 높아진 국내주식 대비 전문적인 해외주식 정보를 보유한 PB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각지의 증권사 및 독립 리서치 회사와 구축한 리서치 네트워크는 PB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전략센터장은 "해외주식세미나에 오신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해외주식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글로벌 제휴사의 리서치를 활용한 투자정보 발굴과 함께 PB들을 해외현지에 파견해 해외주식연수를 진행하는 등 정보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미래에셋대우
‘DJSI 월드지수’
7년 연속 선정

미래에셋대우는 17일 미국 다우존스사가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최고 등급인 'DJSI 월드지수'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S&P 다우존스'와 스위스 투자평가사인 '로베코SAM(RobecoSAM)'이 1999년 공동 개발한 지수로 글로벌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공헌·지배구조·인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한다. /김문호 기자 kmh@